

## 준비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활용법

작년 8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516만 명을 돌파했다. 2005년 165만 명과 비교하면 15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면서 노후생활에 있어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은퇴 후 고정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시기에 연금을 더욱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 노년기의 기본생활을 책임질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글. 편집부 자료. 국민연금공단



### 가입기간과 연금수령액은 비례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가령 9만 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연금수령 시 월 35만1,600원을, 18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월 23만1,920원을 받게 된다. 가입기간 20년과 10년의 월 예상연금차이는 12만 원으로, 20년간 연금수령을 가정해본다면 무려 2,80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즉, 납입금액이 동일하다는 조건에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55세 이전에 최소 가입금액 이상을 납입하고, 최대한 빨리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또한, 납입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60세가 지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수급개시연령부터 알아볼 것

은퇴설계를 하려면 먼저 부부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수령액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 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예상연금액 조회 이용

###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많이 납입하는 것이 유리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금액은 최소 9만 원, 최대 45만2,700원이다. 먼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동일하게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9만 원을 납입하면 연금수령 개시 후 월 17만 9,670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최대 금액인 45만2,700원을 납입하면 월 38만9,790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납입보험료는 5배를 더 냈는데 연금수령액은 2배밖에 늘지 않은 셈이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이처럼 수익률로만 놓고 본다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유리해 보이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수령금액을 합산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민간 연금상품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많이 납입하는 것이 좋다.

###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

연금수령기간에 소득이 생긴다면 노령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월평균 소득(243만8,679원)을 넘으면 재직자 노령연금에 해당하고, 초과소득 월액 범위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된다. 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060만 원이 넘으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령자라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